

#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문학포기와 국가주의

송혜경\*

yisong97@hanmail.net

## 차례

1. 들어가며
2. 문학적 배경과 국가
3. 문학포기와 국가
  - 3.1 문학환경과 『부운』
  - 3.2 문학이념과 문학포기
4. 맺음말

## 요지

二葉亭四迷は同時代或は後世の人々から文學的業績を認められながら、彼自身は「文學は嫌いだ」と公言し、文學を抛棄するに至る。彼が文學をあきらめた理由の一つとして、彼が自己の文學的理想と作品が矛盾していることに氣付いたためであると私は考える。

二葉亭四迷は幼年時代漢學を通じて儒教的感化をうけ、これは彼の性格上維新の志士肌として現れる。儒教から影響を受けた「文學經世」、「文章經國」の理想のもとで彼は愛國の一つの方法としてロシア語を學び、外交官になる道を選ぶ。漢學とロシア文學という二つの傾向は彼の國家主義の基盤にな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背景の中で二葉亭四迷は初めての創作作品として「浮雲」を發表する。彼の文學者としての使命は「國家の大勢」を描くのである。しかし「浮雲」は彼の意図した、社會、文明の批判的な要素は薄くなり、お勢の戀愛を通じた主人公の文三の苦惱が中心になっていく。彼の國家主義を基盤とした國家や社會という共同体を描くべき文學者の使命は達成できず、文學を抛棄するに至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二葉亭四迷」と「浮雲」との矛盾から來た二葉亭四迷の文學抛棄は明治20年代、小説という新しい概念を成立させていく文學環境の中で起きた作家の思想と作品との乖離の現れだと言えよう。

**키워드** : 국가주의, 문학포기, 국가, 일본문명, 국가의 대세

## 1. 들어가며

일본의 근대 작가 중에서 후타바테이 시메이(1864-1909)처럼 동시대 혹은 후세 사람들에게 문학적 업적을 인정받으면서도 스스로는 문학자임을 거부하고 문학은 싫다고 공언한 작가도 드물 것이다. 즉 『부운(浮雲)』이라는 근대 리얼리즘의 효시라 일컬어지는 작품을 쓰고 언문일치의 선구자라로 자리매김 되어있지만, 실제 그 자신은 문학을 그만두는 상황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한다면 그가 「문학포기」의 상황을 맞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후타바테이가 『부운(浮雲)』3편의 중절<sup>1)</sup>에 이어 문학을 그만두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는 문학을 그만두게 된 외부적인 이유로서 관보국(官報局)에 들어감으로써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과 내부적으로는 소설이 그의 진리 탐구의 수단으로써 부족했다는 점<sup>2)</sup>을 들고 있다. 또한 도가와 신스케(十川信介)는 「소설을 씀으로써 「정직」이 붕괴했다」<sup>3)</sup>고 하는 후타바테이의 슬회에 주목하여 후타바테이의 「도덕적 중심관념인 「정직」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낙관적 신뢰감이 붕괴」<sup>4)</sup>했기 때문이라고 소설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후타바테이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국가주의와 관련 속에서 그가 문학을 그만두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리 오가이(森鷗外)는 1909년(메이지42년) 5월 10일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타바테이 시메이에게 보내는 추도문 「하세가와 다쓰노스케씨(長谷川辰之助氏)」에서 다음과 같이 슬회하고 있다.

『부운(浮雲)』에는 나도 놀랐다. 소설의 붓이 심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그것이 처음일 것이다.(중략)그 시대에 그런 것을 쓰다니 놀리지 않을 수 없

- 
- 1) 『부운』은 제3편 제19회의 마지막에 「중(終)」이라고 끝맺고 있어 이것이 작품의 끝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후 야나기다 이즈미(柳田泉)에 의해 『부운』은 실제 미완의 작품이며 「중」은 작품의 끝이 아니라, 제3편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혀져 그 후 『부운』의 중절은 정설로 되어 있다. (清水茂 『鑑賞と研究 現代日本文學講座 小説 I』(三省堂,1962), p.59 참조.)
  - 2) 中村光夫 『二葉亭四迷伝』(講談社,1966),pp137-158
  - 3) 二葉亭四迷 「予が半生の懺悔」(『二葉亭四迷 嵯峨の屋おむろ集』, 筑摩書房, 1971), p.114. 이하 「予が半生の懺悔」라 칭한다.
  - 4) 十川信介 『増補二葉亭四迷論』(筑摩書房,1971),p.178

다. 그 시대이기 때문에 놀랍다. 『浮雲, 二葉亭四迷著』라는 여덟 자는 희귀한 모순, 드문 아나크로니즘<sup>5)</sup>으로서 영원히 문학사상에 남겨야 할 것이다.<sup>6)</sup>

예술의 평가에 있어 상당히 높은 기준을 가진 오가이는 『부운』을 「심리적인」면을 다룬 「첫 번째」소설일 것이라고 하면서 「놀랍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또한 그 놀라움의 근거를 「그 시대」에 한정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부운』과 후타바테이 시메이라는 <모순의 비극>은 「그 시대」라고 하는 근대문학을 새롭게 정립시켜나가는 혁명기에서의 문학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메이지 20년대(1887~1896)의 <문학 환경>과 후타바테이 시메이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모순의 비극>을 고찰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후타바테이의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학관이 문학포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시대」에서 후타바테이의 문학과 국가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문학적 배경과 국가

메이지 시대의 문학자들에게는 대체로 어릴 때부터 한학을 배우며 자란 한학학생(漢學書生) 출신이 많다.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고다 로한(幸田露伴)은 물론 모리 오가이(森鷗外),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들은 학문으로서 처음 한문학을 접하고 그 지식을 기본으로 서양의 문학을 받아들였다. 이 점에 있어서 후타바테이 시메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러시아 문학

5) 아나크로니즘 anachronism 시대착오, 역사극이나 역사소설에서 그 시대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사물이 그려진 것을 가리키는 말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1599)에서 시계 소리가 언급된 예 등을 이르는 말이다, 이를 「시대착오」로서 지적하는 의식은 근대이후의 일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오히려 다른 시대의 존재가 다층적(多層的), 혹은 동시적(同時的)으로 향수되는 것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川口喬一/岡本靖正編 『文學批評用語辭典』 참조)

6) 『浮雲』には私も驚かされた。小説の筆が心理的方向に動き出したのは、日本ではあれが始めてであらう。(中略)あの時代にあんなものを書いたのには驚かざるを得ない。あの時代だから驚く。『浮雲、二葉亭四迷作』といふ八字は珍しい矛盾、稀なるアナクロニズムとして、永遠に文學史上に残して置くべきものであらう。(森鷗外 「長谷川辰之助」 『スバル』99號, 1909)

을 접하기 전, 소년 시절에 이미 한문학을 배웠고 한때 서생으로서 한학숙(漢學塾)의 생활도 경험하였다. 후타바테이는 자신이 체득한 한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는 (중략) 유교의 감화도 상당히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공자의 실천궁행(實踐躬行)이라는 사상이 매우 깊이 머릿속에 박혀있었다.(중략)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나는 두 손을 무릎에 단정히 올려놓고 들었다. 이는 선생님의 인격에 의해서보다는 「도(道)」그 자체에 대해 경의를 표한 것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경향, 철학적 경향은 나에게 일찍부터 있었다.<sup>7)</sup>

처음 받는 교육이 한학인 예는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었지만, 후타바테이에게 있어 한학-유교는 그의 「종교적·철학적」 경향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었다. 소년시절 함양된 한학의 유교적 전통은 그의 정신세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생애의 교양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야나기다 이즈미(柳田泉)는 「후타바테이의 해외옹비, 경세제민의 정치가적 이상은 러시아 문학에서 왔다고보다는 오히려 이보다 먼저 접한 한문학의 영향이 더 클 것」<sup>8)</sup>이라 하고 있다. 특히 한문학 중에서도 청나라 초기 문학가로서 당시 메이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위숙자(魏叔子)<sup>9)</sup>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나라 말기에 태어난 위숙자는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그의 정치적 이상을 문학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다. 후타바테이는 위숙자로부터 사상적 감화를 받아 문학을 통하여 정치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이상을 품게 되었고, 이것으로부터 경세제민의 의지가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야나기다 이즈미는 「후타바테이의 사상의 움직임은 나중에 강한 휴머니즘을 특색」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휴머니즘의 토대가 바로 강한 내셔널리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휴머니즘은 결국 박애평등, 사해동포이지만

7) 私は(中略)儒教の感化をも余程蒙つた。だから一方に於ては、孔子の實踐躬行といふ思想がなかなか深く頭に入つてゐる。(中略)一例を挙げれば、先生の講義を聴く時に私は兩手を突かないぢや聴かなんだものだ。これは先生の人格よりか「道」その物に對して敬意を拂つたので。かういふ宗教的傾向、哲學的傾向は私には早くからあつた。「予が半生の懺悔」

8) 柳田泉 「魏叔子と二葉亭四迷」(『特集 二葉亭四迷のすべて』國文學解釋と鑑賞,1963), p.9

9) 후타바테이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위숙자(1624-1680)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시기를 산 한학자이다. 그는 명나라가 실질적으로 멸망하게 되자, 당시 수제들이 지향하던 관리의 길을 포기하고 고문고학(古文古學)에 정진한다. 그는 명나라 부흥의 이상을 품었으나,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문학 속에서 인민에 대한 휴머니즘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점은 문학경세(文學經世), 혹은 문장경국(文章經國)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메이지 시대의 문학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柳田泉의 「魏叔子と二葉亭四迷」 참조)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일본국민이고, 일본국민의 삶의 평안으로부터 동양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후타바테이는 스스로도 「나의 반생의 참회(予が半生の懺悔)」에서 자신에게 있어서의 유교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자신이 이상으로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는 <정직>이고 이러한 정직이라는 사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으로 「유교의 감화」를 들고 있다<sup>10)</sup>. 이러한 한학으로부터 습득한 유교를 일상에까지 철저히 받아들였던 무사(武士)생활의 전통은 후타바테이에게 있어 유신 지사(志士)의 기질로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양된 후타바테이의 국가주의로 그는 세 번에 걸쳐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한다. 이는 단순히 군복을 입고 싶다는 동경이나, 호연지기가 아닌 그의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친 치시마 가라후토 교환조약(千島樺太交換條約)과 관계가 있다. 치시마 가라후토 교환조약은 치시마 열도 전부를 일본의 소유로 하고 그 배상으로 가라후토 전도(全島)를 러시아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조약이었다. 이는 「자기 것을 자기 것과 교환했다(我が物を以て我が物と交換した)」고 하여 일반인들에게 큰 원성을 샀을 뿐 아니라, 신문지상에서는 일거에 정부의 비밀주의를 공격하는 등 조약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건과 여론의 반응이 열 살 남짓한 소년의 일생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후에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가 문학을 좋아하게 되었나는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 먼저 러시아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부터 말해야겠다. 그건 이렇다.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가라후토 치시마 교환사건이라는 일이 일어나, 상당히 세상이 시끄러워진 후 「내외교제잡지(内外交際雜誌)」에서는 빈번하게 적개심을 고취시킨다.<sup>11)</sup>

후타바테이는 문학을 하게 된 이유, 그중에서도 러시아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어린시절의 가라후토 치시마 교환 조약이라는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에게 있어 러시아와의 최초의 접점은 불평등하게 맺어진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

10) 「予が半生の懺悔」

11) なぜ私が文學好きになつたかといふ問題だがそれには先づロシア語を學んだいはれから話さねばならぬ。それはかうだ一何でも露國との間に、かの樺太千島交換事件といふ奴が起つて、だいふ世間がやかましくなつてから後、「内外交際雜誌」なんてのでは、盛んに敵愾心を鼓吹する。「予が半生の懺悔」

어서 그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사상의 경향 - 유신의 지사기질이라고 할만한 경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강개애국(慷慨愛國)이라는 여론과 나의 그러한 사상이 서로 만난 결과, 장래 일본의 심우대환은 러시아임에 틀림없다. 지금 막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어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에서 외국어학교의 러시아어과에 입학하였다.<sup>12)</sup>

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후타바테이에게 있어 한학을 통해 형성된 유신 지사의 기질이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나자, 「강개애국」의 기풍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불평등하게 맺어졌다고 하는 일본과 러시아와의 조약과 이에 분개하는 여론에 자극받아 생애의 계획을 결정한 것이다. 「장래의 큰 환란에 대한 근심(심우대환)」으로 첫 번째는 군인이 되고자 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그 차선택으로 선택한 것이 러시아어인 것이다. 그가 러시아어를 접하게 된 동기에서 볼 때 그의 사상적 배경은 이렇듯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후타바테이는 한학과 러시아문학이라고 하는 서로 모순되는 두개의 학문 체계를 열 살 남짓한 소년시절부터 병행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어린 시절 익혔던 서로 다른 학문의 영향에 대해 스스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린 시절 일종의 예술적인 취미가 러시아 문학에 의해 고양되어져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다. 한편 지사(志士)기질을 가져오게 한 강개열(慷慨熱) - 이 두 경향이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거의 평행하게 진행되었다.<sup>13)</sup>

한학을 중심으로 한 동양풍의 윤리관과 러시아 문학에 의해 이식된 서양풍의 인간관, 사회관이라는 서로 모순된 경향을 후타바테이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병행해서 접

12) 私がずっと子供の時分からもつてゐた思想の傾向一維新の志士肌ともいふべき傾向が、頭を擡げ出して來て、即慷慨愛國といふやうな輿論と、私のそんな思想とがぶつかりつて、其の結果、將來日本の深憂大患となるのはロシアに極つてゐる。こいつ今の間にか禦いで置かなきゃいかんわい—それにはロシア語が一番に必要だ。と、まあ、こんな考からして外國語學校の露語科に入學することゝなつた。「予が半生の懺悔」

13) 子供の時代からある一種の芸術上の趣味が露文學に依つて油を注ゝれて自然に發展して來たので、それと一方、志士肌の齎した慷慨熱—この二つの傾向が、当初のうちはどちらに傾くともなく、殆ど平行して進んでゐた。「予が半生の懺悔」

하였다. 서로 상극으로 보이는 두 개의 학문은 후타바테이에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비분강개의 열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학문적 배경이 후타바테이의 국가주의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타바테이의 사상이 그의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또한 그가 문학을 그만두게 된 원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 3. 문학포기와 국가

한문학과 러시아 문학이라는 문학적 배경 속에서 후타바테이 시메이는 첫 번째 창작 작품으로 『부운』을 발표한다. 후타바테이는 1886년(메이지19년) 『부운』을 기고하여 1887년 그 첫 편을 출판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타바테이 시메이와 『부운』이라고 하는 <모순의 비극>은 바로 「그 시대」에 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다면, 『부운』이 발표될 당시 문학 환경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또한 이러한 환경이 후타바테이의 국가주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본 장에서는 『부운』이 발표될 당시의 『부운』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을 통하여 「그 시대」의 문학적 환경을 살펴보고 이 속에서 후타바테이가 문학을 그만두게 된 원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1 문학환경과 『부운』

『부운』이 쓰여진 1880년대 말에는 소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일련의 논쟁들이 일어난다. 스즈키 토미(鈴木登美)는 『이야기된 자기』에서 「문학 극쇠 논쟁(文學極衰論爭)」을 들어 메이지 20년대에 소설이 놓여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sup>14)</sup> 즉 소설

14) 1889년부터 1890년에 걸친 「문학 극쇠 논쟁」에서 문학의 쇠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새로운 소설이 애국애민(愛國愛民)의 대애(大愛)가 아니라, 남녀 서생의 치정치화(癡情癡話)만을 묘사하는 인정소설이어서 광대무변한 소설의 폭을 좁혔다고 개탄한다. 문학의 쇠퇴를 한탄한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매마침 출판된 야노 류케이(矢野龍溪)의 정치소설 『부성물어(浮城物語)』를 환영하나, 우치다 로안(内田魯庵), 이시바시 닌게쓰(石橋忍月) 등은 일반 사회의 인정(人情)을 포기하고 그 경계 밖으로 탈출한 소설이라 하여 비판한다. 모사, 리얼리즘, 진리, 인정과 같은 소설의 비평용어에 대한 외관상(시니피앙)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그 구체적인 파악방식, 이해방식(시니피에)에는 유동적이고 애매한 상태였다. (스즈키 토미 『이야기된 자기』(생

이란 「인정의 리얼리스트한 모사」를 통해 「진리」를 밝힐 수 있는 특권적인 매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수용되었지만, 그 「리얼리티」나 「진리」가 무엇을 지시하는가에 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채 일련의 논쟁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그는 「문학 극쇠 논쟁」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학 극쇠 논쟁」과 같은 소설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하는 「논쟁의 계절」에 『부운』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가?

『부운』은 발표될 당시 호의적인 단평들이 있었으나, 그러한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이해를 전제로 『부운』의 사실(寫實)의 가치를 인정한 비평가로 이시바시 닌게츠(石橋忍月)를 들 수 있다. 이시바시 닌게츠는 1887년(메이지 20년) 『아네토 세카가미(妹と背鏡)』로 비평 활동을 시작하여 전문비평가의 시초가 되었다고 일컬어지는데, 「부운의 포뿔(浮雲の褒貶)」<sup>15)</sup>과 「부운 제2편의 포뿔(浮雲第二編の褒貶)」<sup>16)</sup>을 통하여 『부운』에 대한 비평을 전개한다.

먼저 닌게츠는 지금은 소설의 시대이고 계속해서 출판되는 소설들 중에서 「진정한 소설의 체제를 갖춘 것은 『부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sup>17)</sup>라고 하여 『부운』에 대한 찬사로 그의 비평을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진정한 소설의 체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설의 요(要)는 인물의 성격(キアラクテル), 의상(意想: アイデア)을 베끼는 것에 있다. 지위 경위의 변화는 그 성질, 아이디어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그리는 것이다. 사회일만 혹은 일부분의 풍속 인정을 기재하여 후세로 하여금 당시를 추측하게 하는 것이다.<sup>18)</sup>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닌게츠는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성질과 그 생각을 묘사하는 것에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지위, 환경의 변화는 그러한 인간의 성질을 묘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소설의 묘(妙)」는 「표면에 나타나는 가장(假裝) 허식(虛飾)의 미관」 혹은 「완전한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

각의 나무, 2004), pp58-62 참조)

15) 「浮雲の褒貶」 『女學雜誌』74, 76, 79, 80號, 1887.9-10

16) 「浮雲第二編の褒貶」 『女學雜誌』99, 100, 101號, 1888.3

17) 眞小説の體裁を備ふるもの浮雲に非ずして何ぞや(「浮雲の褒貶」 『女學雜誌』74號, 1887. 9. 3)

18) 小説の要は人物の性質、意想を寫すに在り地位境遇の變化は其性質、意想の發現に如何なる影響を及ぼすあやを畫くに在り社會一般若しくは一部分の風俗人情を記載し後世をして當時を推想せしむるに在り 「浮雲の褒貶」(「浮雲の褒貶」 『女學雜誌』74號, 1887. 9. 3)



과 생각과 지위변화」 혹은 「평범한 인물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경과」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난게쓰는 『부운』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 구체적 사찬 내용을 네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그는 「부운의 저자는 소설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먼저 ①인물을 주(主)로 하고 각색(문장)을 부(副)로 했다는 점, ②인물의 성격과 생각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상당히 치밀하다는 점, ③비천한 풍속, 부박한 인정,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회를 그대로 그렸다는 점, ④평범하고 불완전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난게쓰의 『부운』에 대한 비평에 대해 당시 난게쓰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평가인 우치다 로안(内田魯庵)은 「문단을 눈여겨본 달안가(達眼家)」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난게쓰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치다 로안은 「소설논략(小説論略)」<sup>19)</sup>을 통해 이와모토 요시하루(岩本善治)와 논쟁을 벌인다. 이와모토는 1889년 3월 『여학잡지』에 발표한 「소설가의 착안(小説家の着眼)」에서 소설을 쓰는 작가가 지녀야 할 미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작가는 「부도덕을 분개하는 용기」 「자유를 존중하는 정기」 「압제에 분노하는 비분강개」 「덕을 사모하는 순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부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후타바테이의 『부운』을 읽었을 때 나는 조용히 감동했다. 이것은 비분강개의 붓이고, 세상을 조롱하는 문장이고, 거의 염세에 빠지게 하는 착안이다. 나는 이 착안에는 감복할 수 없다. 그러나 어지러운 다수의 소설과 비교해서 이 착안은 일종의 탈속(脫俗)한 바가 있다.<sup>20)</sup>

이와모토는 『부운』은 「비분강개」, 「세상을 조롱하는 문장」, 「염세에 빠지는 착안」이 있다고 한 후, 그 착안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착안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실을 베끼는(實を寫せり)」것에 그치는 많은 소설과 차별화시키고 있다. 즉 많은 소설들이 소설가의 착안하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채 단지 사실만을 베끼고 있는데 비해 『부운』은 탈속한 착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운』에 대해 「염세에 빠지는 착안」으로 다소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그 착안이 탈세속적인 데는 긍정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가

19) 「小説論略」, 『女學雜誌』177號, 1889. 8. 31

20) 二葉亭の「浮雲」を讀むとき密かに感悟したり、此れ慷慨の筆なり、嘲世の文なり、殆んど厭世に陥いれるの着眼なりと、吾人はその着眼に服する能はず、然れども亂々たる數多の小説に比較しては其の着眼の一種脱俗したることを無みする能はざりき、(「小説家の着眼」, 『女學雜誌』154號, 1889. 3. 23)

는 어떠한 착안을 소설에 담아야 하는가?

이와모토는 자신이 반드시 정치소설만을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저자가 「이상(理想)은 높게」, 그 착안하는 바도 그러한 방향으로 할 것을 바라고 있다. 즉 소설가는 일본의 사회에서 「찬연(燦然)한 광채」를 발견하고 이러한 「광채를 간파하는 착안」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가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떠한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着眼)에 있다고 하는 이상주의(理想主義)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모토는 「소설가의 착안」을 발표한 같은 해에 「소설논략」을 발표하고 가장 좋은 소설과 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의장(意匠)이 맑고 깨끗하고 도념(道念)이 순고(純固)한 소설, 소설가로 하여금 오랜 기간 읽게 만들고, 감상하기에 충분히 깊고, 가장 큰 이익을 주고, 가장 높게 변화하게 하는 것 이를 가장 좋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21)</sup>

이와모토는 가장 좋은 소설은 의장이 청결(意匠清潔)하고 도념이 순고(道念純高)한 소설이라고 하여 그의 소설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소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모토는 당시의 소설과 『부운』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지금의 소설은 자주 애정, 결혼, 하숙집, 연설, 정치계, 출세 등을 그려서 실재를 다했다고 말하고 다른 웅대한 상상, 높은 이상, 비상한 결구를 보고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소설이 아니라고 말한다.(중략) 우주는 광막한데 단지 일부에 치우치는 것은 그 편협함에 웃을 수밖에 없다.<sup>22)</sup>

이와모토는 소설가가 소설을 다루는데 있어 애정, 결혼, 하숙집 등과 같은 협소한 것으

21) 意匠清潔、道念純高なるの小説、小説家を以て、讀まるゝこと久しく、味わるゝこと充も深く、益すること尤も大きく、化する所ろ尤も高しとなし、之を以て其最良なるものと爲さる可らず。(「小説論略」, 『女學雜誌』177號, 1889. 8. 31)

22) 今の小説家は往々愛情、下宿屋、演説、政治界、出世などの事を寫して之れ既に實際を寫せりと云ひ、そして他の大いなる想像高き理想、非常なる結構を見て、之れ實際に非ず、小説に非ずと云ふ。(中略)宇宙の事廣漠たるに唯一局部に偏するは其狹量笑ふべし(「小説論略」, 『女學雜誌』177號, 1889. 8. 31)

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학에 있어 우주와 같은 「광대한 세계(廣大なる世界)」를 그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모토가 주장하는 문학에 있어서 대(大)를 그릴 것을 요구하는 요구는 도덕, 윤리적인 입장에서이고 따라서 『부운』이 소세계에 머무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치다 로안은 「『소설론략』질의(『小説論略』質疑)」에서 이와모토의 소세계를 그렸다는 비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기자는 우주가 광막하다는 것을 알뿐 한 하숙집 안에도 변화무쌍(千變萬化)한 기관(奇觀)이 있는 것은 알지 못 하는가. 특히 가장 이상한 것은 애정을 재료로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만약 애정을 재료로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기자의 말대로 우주의 대(大)를 그리는 것도 무미건조한 철학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sup>23)</sup>

우치다 로안은 이와모토의 지나친 이상주의적인 윤리적 문학관을 비난함과 동시에 사사로운 소재를 통한 작품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부운』의 예술적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이른 1888년 도쿠도미 소호(徳富蘇峰)는 『국민지우(國民之友)』을 통해 『부운』이 혐의한 소설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부운 만평(浮雲の漫評)」이라는 기사를 싣고 「이 소설(『부운』)은 재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웅대한 것도 없고, 미묘(美妙)한 것도 없는」 이른바 「시시껄렁한 세와소설(世話小説)」<sup>24)</sup>라고 하고 있다. 또한 다루는 소재에 대해서도 「지극히 작고(小), 지극히 미미하고(微), 지극히 속(俗)되고 지극히 잡(雜)한 것」<sup>25)</sup>으로 평가하고 있다.

메이지20년(1887)을 전후로 한 시기의 비평은 「문학작품의 감식에서부터 치국평천하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졌다」<sup>26)</sup>. 따라서 『부운』에 있어서도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소세계를 그렸다」 「웅대하지 못하다」 「편협 되어 있다」는 등의 비난을 받게 된다. 노구치 다케히코(野口武彦)는 이 시기 소설작품에는 「비분강

23) 記者は宇宙の廣漠なるを知て下宿屋一軒の中に千變萬化の奇觀あるを知らざるや。殊に最も怪しむべきは愛情を材料とするが何故惡しきぞ、もし愛情を材料とせずんば縱令記者の言に従て宇宙の大を寫も無味乾燥なる哲理論となつて止まるのみ。(『小説論略』質疑, 『女學雜誌』179號, 1889. 9. 14)

24) 面白くもなく、可笑しくもなく、雄大なる事もなく、美妙なる事もなく、言はばつまらぬ世話小説(『浮雲(二篇)の漫評』, 『國民之友』16號, 1888. 2)

25) 夫れ唯極めて小、極めて微、極めて俗、極めて雜なる者(『浮雲(二篇)の漫評』)

26) 가라타니 고진 외 『근대 일본의 비평』(소명, 2002), p.21

개」는 쇠퇴하고 「번민」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sup>27)</sup> 『부운』은 바로 비분강개가 번민으로 향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도기에 있어서 후타바테이의 문학 이념은 어디에 있었는가?

### 3.2 문학기념과 문학포기

『부운』은 발표당시 「평범하고 불완전한 인물」을 들어 「성격, 생각, 지위 변화」를 잘 나타내었다고 하는 평가부터 「웅대하지 못하」고 「극히 작은 세계」를 다루었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들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작가인 후타바테이 자신의 『부운』창작 의도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세계를 그리려고 했는가? 또한 그의 작품에 대한 의도와 국가주의, 나아가 문학기념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본 장에서는 후타바테이의 『부운』에 대한 의도와 주제를 살펴보고 그의 문학기념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봄으로써 그가 문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관학교를 졸업하여 군인이 되어 이른바 <실(實)>의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바랐던 후타바테이는 작가로서 그의 작품 속에서 무엇을 다루려고 했는가? 그는 『부운』을 출판하고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작품에서 말하고 싶었던 바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것(『부운』)의 중심이 되었던 사상은 내가 러시아 소설을 읽고 러시아의 관리가 지독히 싫어는데, 그 감정을 일본에 응용한 것일지도 모른다. 관존민비라는 것이 싫었다. 그러한 생각이 중심지도 모른다.<sup>28)</sup>

후타바테이는 나라에 대한 「심우대환」으로 러시아 문학을 시작하였고 거기서 접한 관료제도에 대한 비판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관존민비」에 대한 비판이 『부운』창작에 작용하고 있고, 실제 작품의 초반부에서 관료들에 대한 묘사는 작가의 당시 관료에 대한 풍자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3회 정도에서부터 「일본의 신사상과 구사상」을 그리려고 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신구 두 사상의 충돌」도 러시아의 작

27) 주26)의 책, pp.22-35

28) 彼の中心になつてる思想は、自分が露西亞小説を讀んで、露西亞の官吏がひどく嫌いであつた、其の感情を日本のに應用したのであつたかもしれません。官尊民卑といふことが嫌いであつた、その考えが中心かも知れませんよ。(「作家苦心談」, 『二葉亭四迷集』, 角川書店, 1971), p.410

가 곤잘로프의 작품을 일본에 응용해 보고자 했다고 하고 있다. 그는 비평가의 눈으로 작품을 통하여 관료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였고, 일본의 신사상과 구사상의 충돌이라고 하는 문명 비판적 의도를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문학적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보통의 문학자가 하는 식으로 문학을 애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러시아 문학자가 다루는 문제, 즉 사회 현상(중략)을 문학상으로 관찰하고, 해부하고, 예견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었다.<sup>29)</sup>

후타바테이는 보통의 문학자로서 문학을 애호한 것이 아니라, 문학이란 사회와 국가라는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작품을 통해 관료제의 비판이라는 사회비판, 신구사상의 충돌이라고 하는 「일본문명의 이면」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후타바테이는 문학 속에서 개인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운』에는 그러한 공동체적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특히 작가 후타바테이가 의도했던 관료기구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부운』의 주인공 분조(文三)는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급관리가 되나, 인원정리로 면직을 당한다. 제 1회에서 면직을 당한 분조와 승진한 그의 동료 노보루(昇)와의 대화를 통해 분조의 면직이유가 암시된다. 즉 면직된 야마구치(山口)가 유능하지만, 아부를 잘하지 못하여 과장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아 분조 역시 상사에게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회에서 노보루는 자주 과장과 그의 부인을 찾아가 잘 보이려고 애쓴다. 여기서 과장은 「자유주의의 압제자(自由主義の壓制者)」라고 묘사되어 있고, 노보루의 승진 이유도 과장에게 잘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분조의 면직을 매개로 해서 분조, 노보루, 오세이(お勢), 오마사(お政)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으로 「관료제 비판」은 작품전개의 도구로서만 작용하고 있다. 즉 관료비판은 「『부운』의 배경으로써 묘사되는 것에 불과」<sup>30)</sup>한 것이다.

29) 私のは、普通の文學者的に文學を愛好したといふんぢやない。寧ろロシアの文學者が取り扱ふ問題、即ち社會現象(中略)を文學上から觀察し、解剖し、予見したりするのが非常に趣味のあることゝなつた。「予が半生の懺悔」

30) 田中邦夫 「『浮雲』の主題について—文三の思想と自由民權運動—」(『大阪經大論集』第143號, 大阪經大學會, 1981), p.73

『부운』의 주인공 분조의 언동을 통한 관료비판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분조는 처음에는 자신이 왜 면직을 당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자신의 면직이 과장에 대해 「사무외의 사무」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임을 깨닫고 과장과 남아 있는 자들을 비난한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위해 급실급실하고 노예처럼 구는 것은 실로 비굴하기 그지없다」<sup>31)</sup>고 하고 있다. 또한 오마사에게 과장에게 잘 보이지 않은 것을 비난받으나, 이를 비굴한 행위로 생각하여 수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조의 관료제의 비판은 작품을 통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분조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은 노보루와의 갈등 속에서 전개된다. 과장에게 아부하여 승진하는 노보루, 이를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결백한 분조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사상적 깊이도 없이 단지 배경으로서 끝나 버린다. 이에 대해 이나가키 다쓰로(稻垣達郎)는 『부운』에서 분조는 「관료기구로부터 돌출된 무능한 자(余計者)의 전형」<sup>32)</sup>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료기구의 반역자」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한 작품전체를 통해 「관료기구와의 관계는 점차 줄어들고 연애소설적인 면이 강하게 부풀려 진다」고 하고 있다. 실제 분조의 고뇌는 관료기구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세이와의 관계에서 그녀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임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후타바테이는 러시아 문학의 영향 아래 「일본문명의 이면」을 그리고자 하는 의도로 『부운』을 쓰기 시작했다. 1편에서는 관리의 생활을 제재로 하여 관료제를 희화화하며 써나가기려한 구상이 보인다. 그러나 2편 혹은 3편으로 갈수록 후타바테이는 이러한 처음의 목적대로 글을 계속해서 쓰지 못하였다.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는 3편에서의 수법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는 후타바테이의 「사상적 동요」를 반영<sup>33)</sup>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부운』을 통해 표현하려고 한 「일본문명에 대한 비판」 혹은 「인생, 사회」에 관해 그가 품고 있었던 사상이 정립되지 않은 채로 『부운』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운』은 후타바테이의 의도와는 달리 「오세이에 대한 분조의 끊임없는 구애소설」<sup>34)</sup>로 흘러가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후타바테이가 생각한 소설가의 사명은 어디에 있었는가?

31) 僅かの月給の爲めに腰を折って、奴隸同様な眞似をするなんぞって實に卑屈極る。(「浮雲」『二葉亭四迷集』角川書店, 1971, p.66)

32) 稻垣達郎 「文學革命期と二葉亭四迷」(『岩波講座文學』4, 岩波書店, 1954), p.89

33) 中村光夫 『二葉亭四迷傳』, p.105

34) 畑有三 「二葉亭四迷-「眞理」探究と「浮雲」の製作-」(『國語と國文學』, 東京大學國語國文學會, 1966), p.55

후타바테이는 자신의 일기를 통해 「오늘날 소설가 비평가는 모두 글자를 쫓아 인간의 성질을 베껴, 국가의 대세를 그리는 것을 잊어버렸다。」<sup>35)</sup>고 비판한 뒤, 소설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 필의 붓을 들어 국민의 기질, 풍속, 향하는 바를 옮겨(寫) 국가의 대세를 그리는(描) 것은, 인간의 생황(生況)을 형용하여 학자도 도둑가도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진리를 찾아내어 스스로 안심을 구하지 못하는 민중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sup>36)</sup>

후타바테이는 소설 속에서 「국민의 기질, 풍속, 지향」하는 바를 통하여 「국가」의 대세를 그림으로써 진리에 이르고자 하였다. 이러한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소망은 바로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는 것이었다. 그가 바라는 문학자의 소명은 바로 문학으로 세상을 다스리고(文學經世), 문장으로 나라는 다스리는(文章經國) 것으로, 이는 소설가의 사명이 개인을 그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리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일기는 1889년(메이지 22년) 여름에 쓴 것으로 『부운』 제 3편을 막 끝낸 시기에 해당한다. 이는 『부운』을 왜 중단해야 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 소설가의 사명, 즉 「국민의 기질, 풍속, 지향」을 옮겨 「국가」의 대세를 그려야만 하는 임무를 자신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깨달았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후타바테이의 『부운』의 증절에 이은 문학포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후타바테이의 문학 사상과 당시의 문학환경, 또한 이러한 배경을 통해 출판된 『부운』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문학포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35) 二葉亭四迷 「落葉のはきよせ二籠め」(『二葉亭四迷嵯峨の屋おむろ集』, 筑摩書房, 1971), p.148

36) 一枝の筆を執りて國民の氣質風俗志向を寫し國家の大勢を描きまたは人間の生況を形容して學者も道德家も眼のどまかぬ所に於て眞理を探り出し以て自ら安心を求めかねて衆人の世渡の助ともならば豈可ならずや(각주35), p.148)

것이다.

그에게 있어 문학자의 소명은, 유교적 교육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경국제민(經國濟民),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또한 러시아 소설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소설 속에서 사회현상을 해부, 분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설가는 작품 속에서 국가 사회문명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담아내야 하였다. 그러나 국가주의자로서 일본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담고자 했던 후타바테이와 본인의 의도를 벗어나 개인적인 연애소설로 끝나버린 『부운』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은 메이지 초 아직 정립되지 않은 문학이념을 세워가는 가운데 초래된 모순이기도 한 것이다.

후타바테이의 내셔널리스트로서 위치를 그의 소설작품과 소설가의 사명과의 관계에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후타바테이의 문학포기 이후 더 많은 내셔널리스트로서의 행적이 있다. 20세기 전후, 세계적인 규모의 국가주의가 발흥하였고 이에 수반된 제국주의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휩쓸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도 제국주의의 모습을 띄어갔고 이 시기 후타바테이는 청·장년기를 보냈다. 러일전쟁 직전 대륙으로의 도항(渡航), 신문기자로서의 「동아 경영 연구(東亞經營研究)」 또한 러시아로의 도항 등, 그의 행동은 시대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국가주의자로서의 진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이시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돌리기로 하겠다.

### 참고 문헌

- 스즈키 토미(2004) 『이야기된 자기』, 생각의 나무
- 稻垣達郎(1954) 「文學革命期と二葉亭四迷」, 『岩波講座文學 4』, 岩波書店
- 田中邦夫(1981) 「『浮雲』の主題について—文三の思想と自由民權運動—」 『大阪經大論集』 第143號, 大阪經大學會
- 十川信介(1971) 『増補二葉亭四迷論』, 筑摩書房
- 中村光夫(1971) 『二葉亭四迷伝』, 講談社
- 畑有三(1966) 「二葉亭四迷—「眞理」探究と「浮雲」の製作—」, 『國語と國文學』, 東京大學國語國文學會
- 二葉亭四迷(1971) 「作家苦心談」, 『二葉亭四迷集』, 角川書店
- 二葉亭四迷(1971) 「落葉のはきよせ 二籠め」, 『二葉亭四迷 嵯峨の屋おむろ集』, 筑摩書房
- 二葉亭四迷(1971) 「予が半生の懺悔」, 『二葉亭四迷 嵯峨の屋おむろ集』, 筑摩書房



- 柳田泉(1963) 「魏叔子と二葉亭四迷」, 『國文學解釋と鑑賞』, 至文堂  
「浮雲の褒貶」 『女學雜誌』74號, 1887.9.3  
「小説家の着眼」 『女學雜誌』154號, 1889.3.23  
「小説論略」 『女學雜誌』177號, 1889.8.31  
「『小説論略』質疑」, 『女學雜誌』179號, 1889.9.14  
「浮雲(二篇)の漫評」, 『國民之友』16號, 1888.2